

#MULLAE



COURSE 2 1시간 30분 (2.0km)

자생적 예술마을
문래창작촌

“문래동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과거 문래는 철공소 밀집지역이었고 1970년대에는 다양한 기계 부품을 생산하며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90년대 말부터는 중국산 부품이 밀려오면서 문을 닫는 철공소가 늘어났는데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DORIMCHEON



COURSE 7 1시간 30분 (2.4km)

하천에서
꽃피는 문화다양성
도림천 물길

“도림천은 어떻게 변하는 중인가요?”

예전에는 도림천 근처에 과수원과 목장이 많아서 마장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하천 환경이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산책, 휴식 등 여가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등포
도
어
행

영등포 관광해설사와 함께 이야기 따라 걷는

도보관련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02.2670.3131



#YEONGDEUNGPO



COURSE 1 1시간 30분 (2.5km)

근대문화 속으로 시간여행
영등포 근현대사

“영등포역은 언제부터 발달했나요?”

철도교통과 산업화의 중심인 영등포 일대는 1890년대 경인선과 경부선의 개통 이후 근대 시가지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YEUI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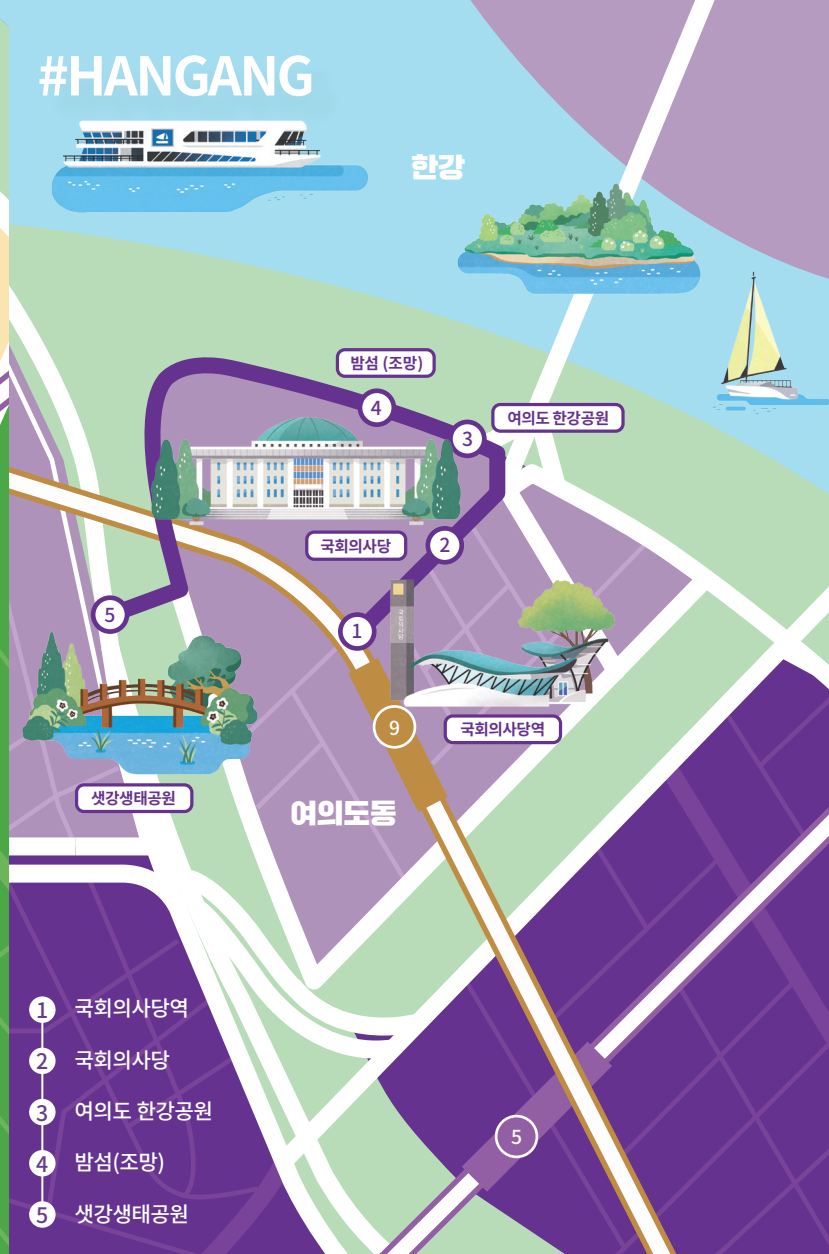


역사의 숲, 현재의 숲 여의도 이야기

“여의도가 허허벌판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황무지에 가까웠던 여의도는 개발 계획에 따라 고층 빌딩들과 공원이 세워지면서 도심 속 심터를 가진 국제금융산업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HANG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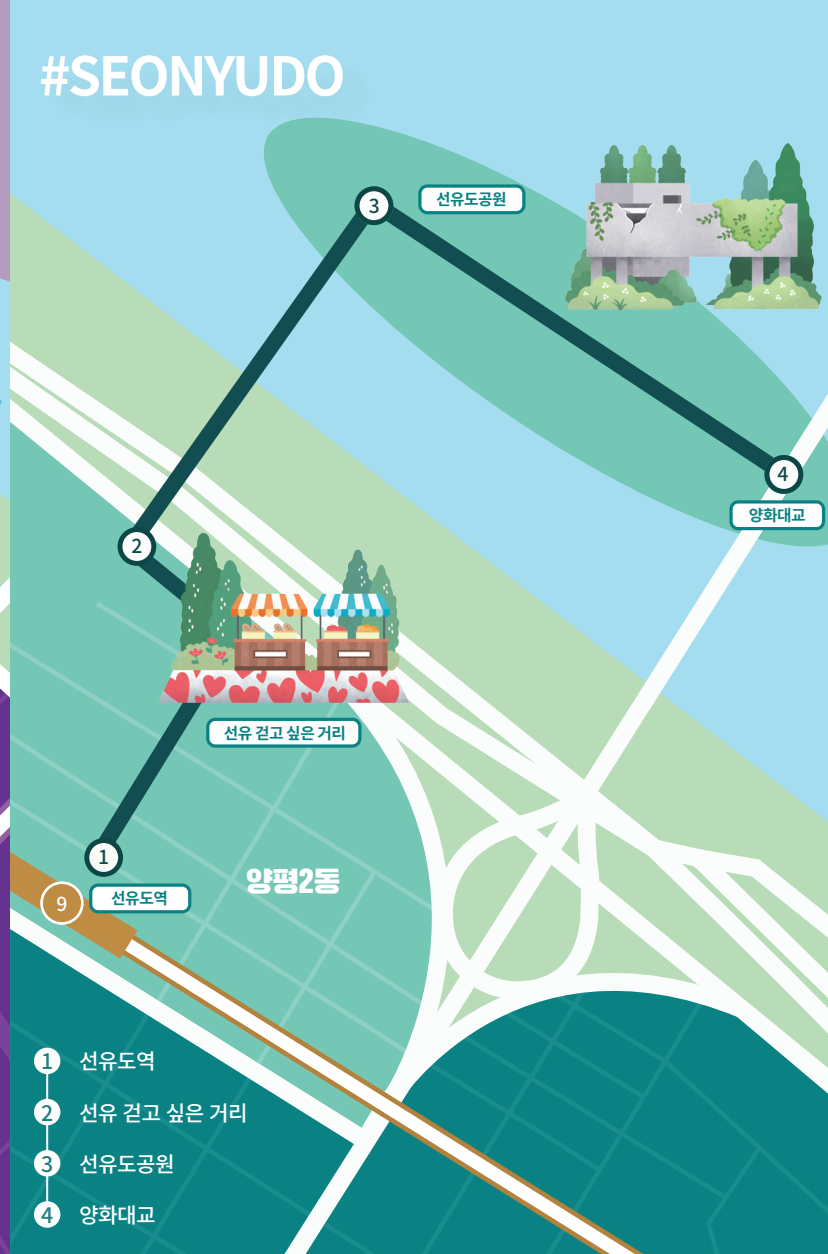


물길 따라 섬 이야기 한강 물길

“한강에 밤섬 말고도 또 다른 섬이 있나요?”

한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섬들이 있는데 예전 한강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 한강섬들은 개발 역사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왔습니다.

#SEONYUDO



쓸모를 다한 산업유산의 재탄생 선유도공원

“선유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작은 언덕이 있어 신선들이 유람을 즐겼다는 선유봉은 1968년 한강개발을 통해 선유도 섬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공업화에 따라 시민들의 식수를 제공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2002년 선유도 공원으로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ANYANGCHEON



강 따라 흐르는 바람길 숲 안양천 물길

“사람들이 안양천을 많이 이용하나요?”

맑은 물과 하얀 모래밭의 삶의 터전에서 산업을 거쳐, 생태하천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안양천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부를 정도로 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